

<앵커>

문화현장, 이번주 불만한 전시를 소개해 드립니다.

권란 기자입니다.



[국제갤러리 / ~10월 5일 / 바티커 개인전 '기형(Anomalies)']

오묘하고 아름다운 문양은 인도 여성들이 미간에 찍는 빈디를 붙여 만든 겁니다.

세번째 눈이라는 의미를 지닌 장신구 빈디를 하나하나 붙이며 인도 출신 여성작가 바티커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했습니다.

[바티커/ 작가 : 신체와 작품의 관계에 관한 작업입니다. 저는 빈디 작업을 통해 지리, 정치, 역사 등 많은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.]

종교적인 의미의 장식물을 한 데 모아봤더니 원래의 종교적인 의미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라며, 바티커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.